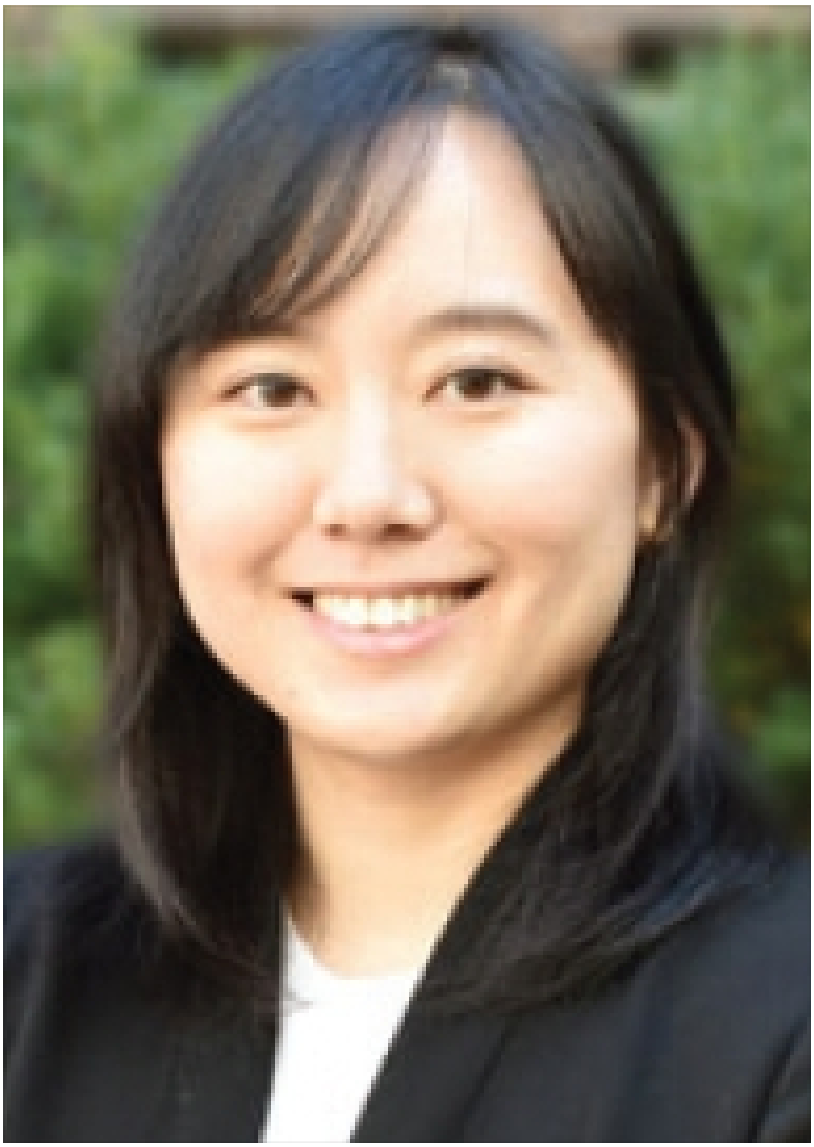
[New York]
입력 2024.03.12 23:29

"연준 올해 세 차례, 내년 네 차례 금리인하 전망"

코참, '미 경제 전망' 세미나 개최
6·7·9월 금리 각 0.25%P 인하 예상
올 경제성장률, 2.4%로 강한 성장



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.4%로 예측하고, 연방준비제도(Fed)는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. 내년에도 금리를 네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.

골드만삭스의 미 경제 전문가인 엘시 팽(사진) 박사는 11일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·회장 박호찬)가 '2024년 미 경제 전망'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. 팽 박사는 "연준이 올해 6월과 7월, 9월 기준금리를 각각 0.25%포인트씩 인하하고 내년에도 금리를 네 차례 내려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는 3.25~3.50%를 유지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.4%로 예측하고,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4분기에 2.0%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. 내년 말 한국 경제성장률은 2.7%로 추정했다.

그는 "골드만삭스의 미국 경제전망은 일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"이라며 "특히 강한 노동임금과 높은 가구의 부에 따라 소비지출이 계속 진

작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반도체법과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재정적인 효과가 점차 사라지겠지만, 동시에 장비투자 성장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. 주거용 주택 투자는 올해 4분기에 3.7% 성장이 예상되는데, 이는 모기지 금리가 약세를 보이는데다 주택 부족으로 올해 금리상승 영향은 계속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. 노동시장은 이미 팬데믹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고, 실업률은 일자리 성장 둔화로 올해 3.6%를 유지할 것으로 팽 박사는 내다봤다.

김은별 기자

금리인하 # 연준 # 한국 경제성장률 # 차례 금리인하 # 경제 성장률